**WPI Profile 내 인생은 나의 것 : 아이디얼리스트**

아이디얼리스트는 나름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이 유난히 강합니다. 만일 그가 조직에서 일한다면, 보기에 따라 ‘독불장군’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조하여, 다른 사람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얼리스트는 남들이 “어머, 너 그래도 돼?” 하는 일조차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입장에서 서슴없이 행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일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때때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 고집이 세다는 평을 듣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타인에게는 관심이 적어서 냉정하고 쌀쌀맞아 보입니다, 혹은 배려심이 없다는 평가를 자주 듣습니다. 조직 관리에 취약하고 사회 생활에서 강요되게 마련인 관행이나 의무 방어를 거부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아이디얼리스트를 바라보는 눈길은 그다지 곱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이 맞다고 느껴질 때, 삶의 자유를 느낍니다. 이것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즐기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일을 하려는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에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아이디얼리스트가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루 일과가 매우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타인의 욕구에 맞춰야 하고 구태의연한 작업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게 이제는 지겹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얼리스트는 창의력이 넘쳐나는 일, 자신만만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꿈꿉니다.

**이상주의적이면서 에고이스트적**

“남들과 같다”고 느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 호기심이 많습니다. 남들과 같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창의성이 있으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의 사람입니다. 관행이나 의무 방어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또 이것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다양성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

주변 사람들의 경우, 아이디얼리스트가 가진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즐겁지만 공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공허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디얼리스트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판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수용되거나 이해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적절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훌쩍 잘 떠나거나 직업 전환이 빠릅니다. 스스로 고독한 것이 아이디얼리스트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이 상황이 안 좋을 때 - 조직 속의 아이디얼리스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받아들여지기에 리더라면 안티 세력이 꼭 생겨납니다. 방향성 제시는 잘 하지만 대신 아래에서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부하가 필요합니다.

리더라면 벤처 기업의 사장(자유롭게 운영을 하는)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조직원이라면 창의성이 있고 자유로운 성향의 사람입니다.

본인의 똥고집이 있습니다. 조화를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고집을 꺾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자학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만일 능력이 없다면 또라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가지지 않고서 이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동료가 이렇다면 재수 없습니다. 나랑 경쟁 관계에 있거나 라이벌인 경우 잘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유를 갖지 못하고 틀이나 규범에 얽매여 있을 때, 학습된 무기력, 조직 안의 좀비, 영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챌플린과 같은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조직 안에서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 때, 슬럼프에 빠진 모습이 됩니다. 정답을 찾고, 구체적인 지시를 기다리며, 게으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때 생활 속에서의 모습은 현실동조적이거나 대세추종적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는 답답한 자기만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계발서나 희망을 주는 파랑새를 찾지만 마음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아이디얼리스트는, 상담 상황에서 보면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사람이며, 자기계발서를 적극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는 것,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시지프스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분위기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엄청난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